색상 면적비 변화에 따른 한복배색의 조화감 비교 연구

- 톤 온 톤 배색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f the Harmony of Coloration according to Transformation of Color Area-Ratio in Traditional Korean Dress

- On the Tone on Tone coloration -

경상대학교 생활과학부 의류학전공
교 수 강 경 자
교 수 추 미 선
진주교육대학교
강 사 팽 숙 경

Dept. Clothing & Textile, Gyeong Sang National Univ.
Professor : Kyung-Ja Kang
Professor : Mi-Seon Chu
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structor : Suk-Kyung Paeng

목 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및 절차
Ⅳ. 연구결과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compare the harmony of tone on tone coloration according to transformation of color area-ratio in traditional Korean dress. The respondents were asked to evaluate 36 stimuli of the traditional Korean skirt and jacket with different color tone. The subjects were 83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or red colors, combinations of vivid/dull, vivid/dark, and light/dark made a difference in the harmony of

Corresponding Author: Kyung-Ja Kang, Department of Clothing & Textile, Gyeong Sang National University, 900 Gazwa-dong, Jinju, 660 701, Korea Tel: 82-55-751-5982 Fax: 82-55-753-9030 E-mail: kjkang@gsnu.ac.kr

coloration according to the transformation of color area-ratio.

For yellow colors, combinations of vivid/dark, light/dull, and light/dark made a difference in the harmony of coloration according to the transformation of color area-ratio.

For green colors, combinations of vivid/dull, vivid/dark, light/dull, and light/dark made a difference in the harmony of coloration according to the transformation of color area-ratio.

주제어(Key Words): 톤 온 톤 배색(tone on tone coloration), 한복(Korean dress), 조화(harmony), 톤(tone), 색상면적비(color area-ratio)

I. 서 론

우리의 전통복인 한복은 서양복에 비해 디자인과 소재가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배색을 통하여 이미지 변화를 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배색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그러나 배색의 조화 정도는 어떤 색과 어떤 색이 배색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지각된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조화로운 배색, 조화롭지 못한 배색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으며 단지 개인이 속한 문화나 여러 환경들에 의해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색들을 어떻게 조합하여 배색하는 것이 조화를 이루는데 효과적인가? 배색은 기능과 목적 또는 효용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박은주, 1989), 조화판단은 구성색의 색속성, 구성색 간의 거리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요인만으로 조화판단이 규정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조화영역에 해당하는 배색은 질서가 잘 짜여져 있어야 하고 질서가 클 때 미적 평가는 증대된다. 질서의 요소를 정하는 방법은 조금 복잡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구성색간의 기하학적 관계와 면적비율을 고려해서 계산한다. 전통적인 조화론에서도 배색 면적비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권민, 1991). 納谷(1973)이나 히야시(林, 1975) 등은 면적비율의 효과를 연구하였고 히야시는 면적비의 영향이 큰 배색과 작은 배색이 있고 면적비의 영향양상은 각각의 배색에 의해 다르다고 하였다.

한복에서의 배색은 저고리와 치마라는 상·하의 배색이 기본이 되며, 배색을 전개할 때에는 먼저 한복이 갖는 구조적 특징과 색이 갖는 색상, 명도, 채도 등의 특징을 고려하여야 한다. 금기숙(1992)도 한복에서의 색조화는 배색된 색상들의 명도차가 조화로운 배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또 하나는 치마, 저고리의 면적에 따른 차이이다. 즉 한복의 구조는 짧은 상의로 인해 하의가 길게 구성되어 서양복과 달리 상·하의인 저고리와 치마의 면적비가 1:6(김형자, 1980) 정도로 크게 차이난다는 점이다. 이처럼 차이가 큰 면적들을 배색할 경우에 대해 박영순(1998)등은 명도가 높은 색상은 면적을 적게 하고 명도가 낮은 색상은 면적을 크게 하며, 채도가 높은 색상은 면적을 적게 하고 낮은 색상은 면적을 크게 배분해야 시각적인 균형 즉 조화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상·하의의 면적비 차이가 큰 한복의 경우 어떤 색상을 상·하 어느 면적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배색이라도 이들이 주는 시각적인 효과나 조화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상·하의의 면적비 변화에 따른 조화감을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자는 선행연구(2002)에서 한복의 치마·저고리의 색상은 동일하게 하고 상·하의의 톤 차이 즉 톤 온 톤 배색에 대한 조화감을 밝힌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복 배색에 대한 조화감 평가에서 면적비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면적이 다른 저고리/치마에 동일한 색상을 톤이 다르도록 조합한 후 이들 톤 조합을 반대로 치마/저고리에 가도록 하였다. 즉 상·하 톤조합의 면적이 바뀌도록 조작한 후 상·하 색상의 면적비 변화에 따라 조화정도가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평가를 통하여 한복배색의 조화감 평가에 미치는 면적비의 영향양상을 밝힘으로서 배색 조화의 이론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색채조화란 말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시작된 말로 현대 색채조화의 출발은 19C 중엽 Chevreul로 부터 비롯된다(大智活, 1976).

Chevreul은 색의 삼속성에 근원을 둔 유사성과 대비성의 관계에서 조화를 규명하였으며 20C에 들어와 독일의 Ostwalt는 두색을 배색할 때 일종의 서열이 형성되며 이 서열로 인해 쾌감을 일으키는 색들이 곧 조화색이라고 하였다. 또한 Ostwalt는 채도가 높을수록 면적은 작아야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하였으며, Field와 Munsell도 색채조화에 있어 면적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Moon과 Spencer는 Munsell이 발표한 조화론을 발전시켜 2색간의 간격이 애매하지 않을 때 상쾌한 배색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 배색에 사용된 색면의 수와 면적관계를 정량화하여 공식으로 만들어 배색의 아름다움을 정량화된 수치로 나타내려고 하였다(박영순, 1998). 즉 그들은 심리 실험을 통해 각 영역마다 질서의 계수를 정하고 있으며 면적비율도 실용에 있어서는 계수표를 통해 질서의 정도를 구하고 있었다(권민, 1991). 그러나 그때까지의 배색이론의 대부분은 색의 설명에 일관성이 없었으며 면적 등의 중요한 요인들은 무시되고 색상만을 중요시하였다. 納谷(1973)등은 면적비의 효과는 존재하지만 구성색 요인에 비하면 적다고 하였다. 細野 등(1955)은 배색에 대한 조화 판단 연구에서 색상차가 적을수록 조화감은 명도차에 의해 영향을 받기 쉬우며 색상차가 클때는 비교적 명도차에 의한 영향을 적게 받는다고 하였다.

Horn은 색조화에서 넓은 면적의 색상이 의복의 전체 분위기와 성격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특히 한복은 저고리와 치마의 면적비가 1:6 정도로 두 색의 면적대비를 고려한 배색에 의해 조화를 이루는 의복형태이다. 여기서 면적비란 배색에 있어 상대적인 면적비례를 말하는 것으로 배색된 색면의 차에 관한 것이며 면적대비는 색채가 면적비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는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색상의 배색이라 하더라도 주색채가 어떤 면적에 배치되느냐에 따라 의복전체의 느낌이 달라지게 된다. 같은 면적의 조합이라 하더라도 그 면적이 커졌을 경우와 서로 다른 면적의 조합의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면적이 커짐에 따라 채도는 높아지기 마련이므로 넓은 면적에 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적에 비해 채도를 낮추는 수단이 취해지고 있다. 또한 명도차가 클 경우 채도차는 적고, 채도차가 클 경우 명도차를 적게 하는 것이 대체로 조화되기 쉽다(김수석, 1993)

금기숙(1992)은 전통한복의 색채조화는 페일과 밝은 원색, 어두운 다크 계열의 배색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색조화의 특징은 명도대비에 있다고 하였다. 대체로 색상차가 적을 때에는 명도차가 크지 않으면 조화되지 않는다. 그 까닭은 색상차와 명도차가 다같이 적어지면 유사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조화로운 배색을 얻기 위해서는 적절한 명도차가 나는 색상 선택이 중요하며 대체로 명도차가 클수록 조화를 이루기 쉽고 명도차가 적을수록 조화되기 어렵다. 강혜원 · 고애란(1991), 이현화 · 박찬부(1997), 이혜숙 · 김재숙(1998) 등은 한복의 배색이 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한복은 형태나 소재 등의 다른 디자인요소들 보다는 색상이 갖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배색을 통한 조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강경자(2001, 2002)는 한미 여대생을 대상으로 톤인 톤과 톤 온 톤 한복배색에 대한 조화감을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그 결과 조화-부조화라고 지각되는 배색이 구분되었고 이들 배색의 조화범위가 문화간에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양국 여대생 모두 톤 인 톤 배색보다 톤 온 톤 배색의 조화범위가 넓게 나타나 색상보다 명도 차가 조화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상에서 한복에서는 다른 디자인 요소들 보다 색상 즉 배색이 갖는 의미가 크며 또한 착용자의 인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단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복은 서양복과 달리 상의와 하의의 면적비가 크게 차이 나므로 동일한 색상의 배색이라도 톤의 조합상태와 이들 조합이 어느 면적에 배치되느냐에 따라 시각적 효과 즉 조화감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한복자극물과 이에 대한 배색 조화감을 측정하는 의미미분척도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자극물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은 치마·저고리의 전통한복을 착용한 여자의 모습으로 얼굴과 헤어스타일은 통제하였다(그림 1). 한복의 구조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구성방법으로 저고리의 깃과 고름색은 치마색과 동일하게 하고 저고리색은 다르게 하였으며 문양, 염색, 끝동 등은 없는 것으로 통제하였다. 본 연구에 선정된 치마·저고리의 색상은 빨강, 노랑, 초록이며 각 색상의 톤은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가 되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사용된 색상과 톤은 〈표 1〉과 같다.

한복착용자의 그림을 CAD system(4D-BOX 6800 Zun system)에 scanning하여 이미지를 입력시킨 다음 선정된 색상을 치마·저고리에 각각 배색되도록 색상과 톤을 조작한 후 프린트하였다.

〈그림 1〉 한복 자극물

〈표 1〉 자극물에 사용된 색상과 톤

색 상	빨강(Red)	노랑(Yellow)	초록(Green)
비비드(vivid)	5R 4/14	5Y 8.5/14	5G 5/10
라이트(light)	5R 8/6	5Y 8.5/6	5G 8/4
덜(dull)	5R 5/6	5Y 7/6	5G 6/4
다크(dark)	5R 2/6	5Y 3/4	5G 2/4

최종 자극물은 무채색을 포함한 28가지(7색×4톤) 치마색과 12가지(3색×4톤) 저고리색을 조합하여 만든 총 336(28×12)개의 실험배색으로 선정·조사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저고리색을 기준으로 3가지 색상 즉 빨강, 노랑, 초록을 각각 치마·저고리에 동색이 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채도는 중간으로 통제하고 명도에 변화를 주어 치마·저고리가 각각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의 4가지 톤이 되도록 한 후 이들을 상·하의에 차이나도록 조합하였다. 즉 전체 자극물 336개중 동색계열이면서 상.하의의 명도가 차이나도록 조합된 톤 온 톤 배색 총36개의 자극물만 본 연구의 평가에 사용되었다. 이때 배경색은 흰색으로 통제하였다.

2) 자극물의 평가

한복배색의 자극물에 대한 평가는 피험자내 설계에 의해 한 피험자가 모든 자극물(336)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한 피험자가 동시에 모든 자극물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한번에 16-17장의 자극물을 제시하고 20회에 걸쳐 색상배색에 대한 조화감의 정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하나의 실험조합에 포함된 자극물 16-17장은 색상과 톤에 의한 조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다. 순서효과를 없애기 위해 지각자에게 제시되는 자극물의 순서를 달리하였다.

3) 조화감의 척도

본 연구에서는 자극물 속의 한복배색에 대한 조화감을 평가하기 위하여 '조화되는-조화되지 않는'의 형용사쌍을 사용하여 7단계 의미미분척도를 제시하였다. 왼쪽 극단의 긍정적인 형용사에 7점을 주고 오른쪽 극단에 배치된 부정적 형용사에 1점을 부여하여 자료를 수량화하였다.

자극물에 대한 조화감 척도의 신뢰도를 밝히기 위하여 예비 조사시와 동일한 대상인 44명의 여대생들에게 예비조사 시와 동일한 자극물(5개)을 평가하게 하였다. 검사-재검사(test-retest) 방법에 의한

신뢰도 계수는 .745로 나타났다.

2.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경상대학교 의류학과에 재학중인 여대생 83명을 대상으로 1999. 10월 초-12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A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통계분석방법은 기술통계와 t-검증, 분산분석과 사후분석으로 L.S.D(최소유의차검증)을 하였으며 그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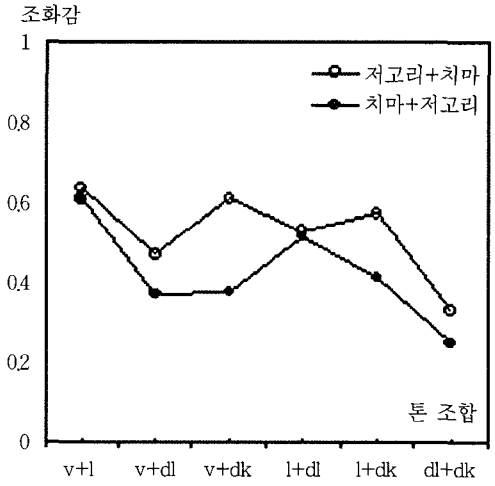
IV. 연구결과

한복의 배색은 3가지 저고리색인 빨강, 노랑, 초록을 상·하 동색이 되도록 한 후 채도는 통제하고 명도에 변화를 주어 치마와 저고리의 톤을 각각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 톤으로 조작하여 상·하 톤이 서로 다르도록 하여 비비드/라이트, 비비드/덜, 비비드/다크, 라이트/덜, 라이트/다크, 덜/다크의 조합으로 하였다. 이렇게 조합된 36개의 자극물에 대한 조화감을 평가하여 색상 면적비 변화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1. 빨강 톤 온 톤 배색의 색상 면적비 변화에 따른 조화감 비교

4가지 톤의 빨강색을 저고리/치마에 톤이 다르도록 조합한 후 이들 톤조합을 반대로 치마/저고리에 가도록 조작하여 색상 면적비를 달리할 경우 이들에 대한 조화감평가 결과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먼저 저고리/치마의 면적에 4가지 빨강색의 톤을 6가지로 조합할 경우 비비드/라이트, 비비드/다크, 라이트/다크, 라이트/덜, 비비드/덜, 덜/다크의 순으



〈그림 2〉 빨강 톤 온 톤 배색의 색상 면적비 변화에 따른 조화감 비교

〈표 2〉 한복의 색상면적비 변화에 따른 조화감 비교

상·하조합 / 톤조합	빨 강			노 랑			초 록		
	저고리/치마	치마/저고리	t-값	저고리/치마	치마/저고리	t-값	저고리/치마	치마/저고리	t-값
vivid/light	0.635	0.610	0.68	0.427	0.393	0.80	0.489	0.510	-0.48
vivid/dull	0.470	0.367	2.37*	0.405	0.381	0.57	0.514	0.416	2.41*
vivid/dark	0.608	0.372	5.56***	0.579	0.418	4.37***	0.597	0.454	3.47***
light/dull	0.529	0.513	0.39	0.525	0.416	2.68**	0.586	0.474	2.66**
light/dark	0.573	0.407	4.18***	0.597	0.405	5.01***	0.649	0.437	5.09***
dull/dark	0.329	0.247	1.80	0.547	0.548	-0.04	0.639	0.611	0.72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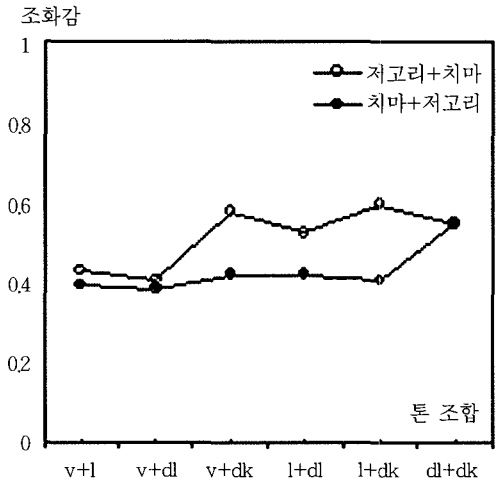
로 조화된다고 지각하였으나 치마/저고리에 이들 톤을 바꾸어 조합할 경우 비비드/라이트, 라이트/덜, 라이트/다크의 조합은 조화되는 것으로 비비드/다크나 덜/다크의 조합은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였고 특히 다크/덜의 배색은 가장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빨강 톤 온 톤 배색에서 상·하 색상면적비 변화에 따라 조화감 지각에 차이를 보인 배색은 비비드/덜, 비비드/다크, 라이트/다크로 나타났다. 비비드/다크 톤 배색을 보면 선명한 비비드 빨강을 좁은 면적인 저고리에 어두운 다크 빨강을 넓은 면적인 치마에 배색한 경우는 조화로운 것으로 지각하였으나 색상면적비가 바뀐 빨강 다크 저고리와 비비드 치마는 매우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여 면적비의 영향을 크게 받는 톤조합으로 나타났다. 라이트/다크, 비비드/덜 톤 배색에서 보면 밝거나 선명한 톤인 라이트와 비비드를 좁은 면적인 저고리에, 어둡거나 흐린 톤인 다크나 덜 톤을 치마에 배색하였을 경우는 조화로운 것으로, 색상면적비가 바뀐 다크 저고리와 라이트 치마, 덜 저고리와 비비드 치마는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즉 동일 한 톤의 배색이라도 저고리에는 명도나 채도가 높은 톤의 색상을 치마에는 보다 어두운 색을 배색하였을 때 더 조화로운 것으로 지각하였다.

한편 비비드/라이트, 라이트/덜, 덜/다크 톤 배색과 같이 유사한 톤으로 구성된 경우는 톤이 저고리/치마, 치마/저고리 중 어느 면적에 위치하더라도 조화감 평가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상·하의 색상면적비 변화가 조화감 지각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비드/다크, 라이트/다크와 같이 톤 구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는 면적비에 따라 조화감이 다르게 지각되었다. 즉 유사한 톤 조합인 비비드/라이트, 라이트/덜 톤의 배색은 색상면적비에 상관없이 조화로운 것으로 평가되었고 특히 비비드/라이트 톤 의 배색이 매우 조화롭다고 지각된 반면 덜/다크 톤의 배색은 색상 면적비에 상관없이 조화감이 낮은 것으로 지각되었다.

2. 노랑 톤 온 톤 배색의 색상면적비 변화에 따른 조화감 비교

4가지 톤의 노랑색을 저고리/치마에 톤이 다르도록 조합한 후 이들 톤조합을 반대로 치마/저고리에 가도록 조작하여 색상 면적비를 달리할 경우 이들에 대한 조화감평가 결과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먼저 저고리/치마의 면적에 4가지 노랑색의 톤을 6가지로 조합할 경우 비비드/라이트나 비비드/덜보다 라이트/다크, 비비드/다크, 라이트/덜의 톤 조합이 잘 조화된다고 지각하였다. 그러나 이들 톤을 치마/저고리에 바꾸어 조합할 경우에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노랑 톤 온 톤배색에서 동일한 배색일지라도 상·하 색상 면적비 변화에 따라 조화감 지각에 차이를 보인 배색은 비비드/다크, 라이트/덜, 라이트/다크로 나타났다. 비비드/다크 톤 배색을 보면 밝은 톤인 비비드가 좁은 면적인 저고리에, 어두운 톤인 다크가 넓은 면적인 치마에 배색되었을 경우 색상면적비가 바뀐 노랑 다크 저고리와 비비드 치마보다 잘 조화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라이트/덜, 라이트/다크 톤 배색에서도 밝은 톤인 라이트가 저고리에, 덜과 다크가 치마에 배색된 경우는 조화로운 것으로, 색상면적비가 바뀌어 덜과 다크가 저고리에



〈그림 3〉 노랑 톤 온 톤 배색의 색상 면적비 변화에 따른 조화감 비교

라이트가 치마에 배색된 경우는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여 명도가 높은 톤의 색상은 좁은 면적에 두고 어두운 색을 넓은 면적에 배색하였을 때 더 조화로운 것으로 지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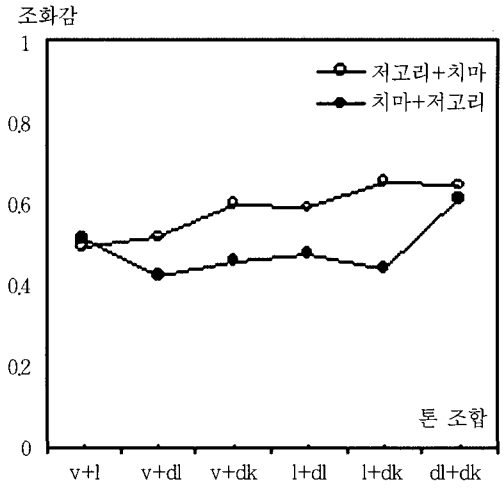
한편 저고리/치마에 비비드/라이트, 비비드/덜, 덜/다크 톤의 배색을 치마/저고리에 바꾸어 배색할 경우 상·하의 색상면적비 변화가 조화감 지각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랑 비비드/라이트, 비비드/덜 톤의 경우 이들 배색을 치마/저고리에 바꾸어 조합하여도 상·하 색상 면적비에 상관없이 조화정도에서 낮게 평가되었고 덜/다크 톤의 배색은 매우 조화로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여기서 비비드/라이트, 덜/다크 톤 배색의 경우는 빨강 톤 온 톤 배색에서도 색상면적비 변화에 따라 조화감 지각에는 차이가 없는 배색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화되는 정도는 두 색상 간에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이는 같은 톤 조합으로 상·하의 면적변화에 따른 조화감 지각에는 차이가 없지만 색상에 따라 조화감이 다르게 지각됨을 의미한다.

3. 초록 톤 온 톤 배색의 색상면적비 변화에 대한 조화감 비교

4가지 톤의 초록색을 저고리/치마에 톤이 다르도록 조합한 후 이들 톤조합을 반대로 치마/저고리에 가도록 조작하여 색상 면적비를 달리할 경우 이들에 대한 조화감평가 결과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먼저 저고리/치마의 면적에 4가지 초록색의 톤을 6가지로 조합할 경우 라이트/다크, 덜/다크, 비비드/다크, 라이트/덜, 비비드/덜, 비비드/라이트의 순으로 조화된다고 지각하였다.

그러나 이들 톤조합을 반대로 치마/저고리에 바꾸어 조합할 경우 덜/다크, 비비드/라이트의 톤조합이 조화된다고 지각하였다. 여기서 이들 두 톤조합은 상·하 어느쪽으로 바꾸어 조합해도 조화된다고 지각되어 상·하 색상의 면적비 변화가 조화감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록 톤 온 톤 배색에서 상·하 색상 면적비 변화에 따라 조화감 지각에 차이를 보인 배색은 비비드/덜, 비비드/다크, 라이트/덜, 라이트/다크로 나타났다. 라이트/다크, 비비드/다크 톤 배색에서 보면 밝거나 선명한 톤인 라이트나 비비드톤이 좁은 면적인 저고리에, 어두운 다크톤이 넓은 면적인 치마에 배색되었을 경우는 조화로운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색상면적비가 바뀐 초록 다크 저고리와 라이트 치마, 비비드 치마와의 배색은 조화정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빨강과 노랑 톤 온 톤 배색에서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한복배색에서 색상에 상관없이 조화로운 배색으로 지각되는 톤 조합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비비드/덜, 라이트/덜 톤의 배색에서도 밝거나 선명한 톤인 비비드나 라이트가 좁은 면적인 저고리에, 흐린 덜 톤이 치마에 배색된 경우는 조화로운 것으로, 색상면적비가 바뀐 덜 톤 초록 저고리와 라이트나 비비드 톤 치마는 조화정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하여 색상면적비 변화에 따라 상반된 반응을 나타내었다.



〈그림 4〉 초록 톤 온 톤 배색의 색상 면적비 변화에 따른 조화감 비교

한편 비비드/라이트, 덜/다크 톤의 배색에서는 색상면적비 변화가 조화감 지각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비드/라이트, 덜/다크 톤의 배색은 상·하 색상면적비에 상관없이 조화로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V. 결 론

본 연구는 한복배색 시 빨강, 노랑, 초록을 각각 상·하동색으로 하고 채도는 통제시키고 명도에 변화를 주어 상·하 톤을 각각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톤으로 조작하였다. 그 다음에 저고리/치마에 이들 톤을 서로 다르게 조합하여 각 색상별 6가지 톤 조합이 되도록 하고 이들 톤 조합을 반대로 다시 치마/저고리에 조합되도록 조작하여 동일한 톤의 조합이지만 상·하 색상의 면적비 변화에 따라 조화감이 어떻게 지각되는지를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빨강 톤 온 톤 배색을 보면 비비드/덜, 비비드/다크, 라이트/다크 톤 배색이 상·하 색상면적비 변화에 따라 조화감 지각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비비드/다크, 라이트/다크, 비비드/덜 모두 밝고 선명한 라이트나 비비드 빨강을 좁은 면적인 저고리에 흐리거나 어두운 덜이나 다크 빨강을 넓은 면적에 배색한 경우는 조화로운 것으로, 상·하 색상면적비가 바뀌어 덜이나 다크 톤을 저고리에 라이트나 비비드 톤을 치마에 배색한 경우는 조화롭지 못한 것으로 지각하였다. 그러나 비비드/라이트, 비비드/덜의 배색은 색상면적비에 상관없이 조화로운 것으로, 덜/다크 톤 배색은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노랑 톤 온 톤 배색을 보면 비비드/다크, 라이트/덜, 라이트/다크 톤 배색이 상·하 색상 면적비 변화에 따라 조화감 지각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이들 톤 배색은 모두 선명하고 밝은 비비드나 라이트를 좁은 면적인 저고리에, 흐리거나 어두운 덜이나 다크 톤은 넓은 면적인 치마에 배색하였을 때 조화로운 것으로, 색상면적비가 바뀌어 덜이나 다크를 저고리에 비비드나 라이트를 치마에 배색한 경우는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그러나 비비드/라이트, 비비드/덜 톤의 배색은 색상 면적비에 상관없이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덜/다크 톤의 배색은 조화로운 것으로 지각하였다.

초록 톤 온 톤 배색을 보면 비비드/덜, 비비드/다크, 라이트/덜, 라이트/다크 톤 배색이 상·하 색상 면적비에 따라 조화감 지각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이들 톤 배색 모두 밝거나 선명한 톤인 라이트나 비비드가 면적이 좁은 저고리에, 흐리거나 어두운 톤인 덜이나 다크가 면적이 넓은 치마에 배색되었을 경우 조화로운 것으로, 색상면적비가 바뀌어 덜이나 다크를 저고리에 비비드나 라이트를 치마에 배색한 경우는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그러나 비비드/라이트, 덜/크 톤의 배색은 상·하 색상면적비에 상관없이 조화로운 것으로 지각하였다.

이상에서 한복의 색상면적비 변화에 따른 조화감 평가는 두 가지 점에서 특정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첫째는 배색이 유사한 톤으로 구성된 경우 상·하의 색상 면적비 변화가 조화감 지각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톤 구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는 면적비에 따라 조화감이 다르게 지각되었다. 즉 유사한 톤으로 구성된 비비드/라이트, 덜/다크 톤 배색은 빨강, 노랑, 초록 등의 색상에 따라 조화감 지각에서는 차이를 보였으나 이들 톤 배색으로 상·하 면적을 바꾸어 조합할 경우에는 면적비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톤 조합으로 나타나 색상에 관계없이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톤 차이가 큰 라이트/다크, 비비드/다크 톤 배색은 3가지 색상 모두 색상 면적비 변화에 따라 조화감 지각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면적비의 영향이 큰 배색과 적은 배색이 존재하며 면적비의 영향양상은 각각의 배색에 의해 다르다고 한 히야시(林, 1975)의 견해를 잘 지지해준다. 둘째는 동일한 배색이라도 좁은 면적인 저고리에 밝고 선명한 색을, 넓은 면적인 치마에 흐리거나 어두운 색을 조합하였을 때 보다 더 조화롭다고 지각되었다. 즉 라이트/다크, 비비드/다크 톤 배색의 경우를 보면 밝고 선명한 라이트나 비비드를 좁은 면적인 저고리에, 어두운 다크 톤을 넓은 면적인 치마에 조합한 경우는 조화로운 것으로, 반면에 색상면적비가 바뀐 어두운 다크 톤 저고리와 밝고 선명한 라이트나 비비드 치마는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되어 명도나 채도가 높은 톤이 좁은 면적인 저고리에 조합되었을 때 보다 더 조화로운 배색 효과를 주었다. 이는 색상의 면적대비에서 명도가 높은 색상은 면적을 적게 하고 명도가 낮은 색상은 면적을 크게 배분해야 시각

적인 균형을 얻을 수 있다는 색채이론이 입증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우리 전통 한복이 갖는 배색 특징 즉 맑고 밝은 색상들 즉 명도가 높은 색상들은 저고리에 짙은 색상들은 치마에 조합하는 배색방법에 익숙해져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상의 두 가지 경향을 모두 만족하는 배색 즉 톤 차이가 나게 구성된 배색으로 이들 톤 중 명도나 채도가 높은 톤을 좁은 면적인 저고리에 조합하는 경우 이들 배색은 색상에 상관없이 조화로운 배색효과를 주었다. 즉 라이트/다크나 비비드/다크 등 톤 차이가 나는 배색을 저고리/치마에 조합하는 경우 색상에 상관없이 조화로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상에서 보다 더 조화로운 배색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배색하고자하는 두색 간의 차이 즉 색이 갖는 색상, 명도, 채도 등의 특성에 차이가 있어야 하고 배색 시에는 이들 특성과 면적비를 고려하여 적절한 면적에 적절한 색상을 배치하여야 보다 조화로운 배색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복의 치마 저고리 색상은 동일하게 하고 채도는 중간으로 통제하여 명도에 변화를 준 톤 온 톤 배색에서 동일한 배색이나 상·하의의 톤을 바꾸어 색상들의 면적비를 달리할 경우 이들 배색들에 대한 조화감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앞으로 본 연구에 포함시키지 못한 배색유형이나 문양, 평가자의 연령층이나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 사료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평가자와 평가 장소가 한정되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확대 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경자(2001). 한복 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 여대생의 지각 반응 연구(제1보) -톤 인 톤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5(4), 731-742.

강경자(2001). 한복 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 여대생의 지각 반응 연구(제2보) -톤 온 톤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6(3/4), 443-453.

강혜원, 고애란(1991). 여자한복의 인상형성 연구 -디자인의 변형과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5(2), 211-227.

권 민 역(1990). 조형심리. 서울: 동국출판사.

금기숙(1992). 한국 전통 복식미의 현대적 활용. 복식, 19, 29-40.

김수석(1993). 조형심리학입문. 서울: 지구출판사.

김형자(1980). 의상의 배색감정효과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3

박영순 외(1998). 색채와 디자인. 교문사. 42.

박은주(1999). 색채조형의 기초. 서울: 미진사.

이현화, 박찬부(1997). 의복단서, 지각자변인이 여자의복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1) -의복단서를 중심으로-. 복식, 32, 313-336.

이혜숙, 김재숙(1998). 복식색과 색조합의 이미지지각(제1보) -여자저고리·치마를 중심으로 한 준 실험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5), 598-606.

納谷嘉信(1973). 色彩の 心理効果 テレビジヨン學會(編) 測色と色彩心理 日本放送出版協會.

大智活(1976). デザインの 色彩計劃. 美術出版社, 153.

細野尙志, 兒玉晃, 高木愛子(1955). カラ-ハ-モニ-の研究 3, 色彩研究, 2(1), 45-47.

林知己夫, 相馬一郎, 富家直, 近江源太郎, 矢部和子(1975). 配色の調和判斷に及ぼす 面積比の果. 日本心理學會, 第39回大會.

(2004년 11월 12일 접수, 2005년 3월 3일 채택)